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작성자: 강준구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 3460-1058】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 3460-1136】

主要內容

- 한국·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2004년 4~10월) 전년동기대비 對칠레 수입 급증(81.4% 증가)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7.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결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며, 농축산물 수입 증가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수입 발생분을 감하면,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수입은 22.2% 증가로 對칠레 수출증가율 36.9% 보다 낮고, 무역수지 적자는 8.6% 증가(3.6억 달러)한 것에 그침.
 - 對칠레 농축산물 수입증가는 무역전환효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으로는 對칠레 수입 상위품목인 삼겹살, 포도주, 키위프루트 등이 있음.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던 포도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공산품과 농축산물 수입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협상 당시 예상대로 전자제품, 자동차 등 즉시 관세철폐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對칠레 수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고, 농축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7.9% 증가하였으나 對칠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함.

1. 개요

□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음.¹⁾ 수차례의 협상 결과, 2002년 10월 한국·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후, 對칠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칠레와의 FTA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음.²⁾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인 2004년 4~10월 동안 對칠레 수출은 4.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9% 증가하였고, 수입은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7.3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22.3% 증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표 1>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10월
수출 (증가율)	593.0 (30.2)	572.6 (-3.4)	454.0 (-20.7)	517.2 (13.9)	412.0 (36.9)
수입 (증가율)	902.0 (10.6)	696.1 (-22.8)	753.9 (8.3)	1057.7 (40.3)	1140.1 (81.4)
무역수지 (증가율)	-309.0 (-14.2)	-123.5 (-60.0)	-299.9 (142.8)	-540.5 (80.2)	-728.0 (122.3)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본고에서는 對칠레 교역동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무역수지 악화의 원

1) 한국이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유는 칠레가 중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주지역으로 진출 하는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미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볼 때 교역 비중이 크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아 FTA를 체결하더라도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

2) 칠레와의 FTA 협상 당시 국내에서는 칠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낮고 FTA 협정문에 칠레의 냉장고, 세탁기 등은 관세철폐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출 증가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농축산업의 경우, 칠레가 자연조건, 투입요소의 비용 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포도, 키위 등 한국 과일농가의 피해가 크고, 동식물 검역 절차의 변경으로 농축산품의 수입 급증이 우려되었음.

인과 한국·칠레 FTA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함.

2. 교역동향

가. 수출

□ 한국·칠레 FTA 발효 후인 2004년 4~10월의 對칠레 총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6.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년 1~10월 동안의 총수출 증가율(27.1%) 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기 수출증가율(13.9%)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임.

- 품목별로 볼 때(HS 2단위 기준, 이하 괄호 안은 HS 품목코드임),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2004 4~10월)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87), 전자제품 및 부품(85), 기계류(84), 플라스틱제품(39), 광물성 연료 및 제품류(27) 등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표 2>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2004 4~10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HS 2단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
		對칠레 총수출	412.0	36.9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60.9	42.8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79.4	128.9
3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0.4	47.4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9.3	7.1
5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4.3	-29.5
6	73	철강의 제품	10.4	87.7
7	40	고무와 그 제품	12.9	75.4
8	72	철강	8.1	-31.1
9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6.5	47.9
10	55	인조단섬유	4.6	69.3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상위 3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87), 전자제품 및 부품(85), 기계류

(84)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냄. 그중에서도 전자제품 및 부품(85)의 수출증가율은 약 130%에 이르고 있음. 반면, 광물성 연료 및 제품(27), 철강(72) 등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 품목(HS 10단위)별 수출에서도 승용차, 전자제품, 화공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이 약 50%, 상위 20대 품목의 비중이 약 65%로 다양한 제품이 고르게 수출되고 있음.

- 승용차(HS 8703에 포함되는 품목)는 2002년까지 수출이 감소³⁾되다가 2003년에 증가(41.3%) 추이로 전환되었으며, FTA 발효 이후에는 52.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특히 즉시 관세철폐 품목인 접형 자동차와 세단형 자동차가 각각 130.9%, 435.9%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전자제품도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휴대전화의 수출이 228.9%, 캠코더의 수출이 99.9% 증가하는 등 즉시 관세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출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⁴⁾

- 한편, 5년철폐 품목인 경유와 폴리에틸렌의 수출은 각각 29.8%, 22.0% 감소하였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시철폐 품목인 마이크로버스는 2003년까지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5.1% 증가)로 전환되었음.

- 양허 제외품목인 세탁기의 수출증가율은 29.1%로 총수출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냉장고는 수출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품목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FTA 발효 이후 즉시철폐 품목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5년철폐 품목과 제외품목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양허유형에 따라 FTA 효과가 구분되고

3) 對철폐 승용차(HS 8703) 수출은 2000년에 1.6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8.6%, 17.9% 감소되었음.

4) 철폐의 즉시 관세철폐 공산품 품목으로는 TV, 컴퓨터, 휴대폰, 캠코더 등이 있는데, 휴대전화는 HS 8525207032는 즉시철폐이며, HS 8525207031는 10년철폐임.

있음.

나. 수입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1.4% 증가하였는데, 세부품목(HS 10단위 기준)별로 보면 동 관련 제품과 기타 원자재, 삼겹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표 3> 참조).⁵⁾

<표 3> 對칠레 주요 품목의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HS 10단위)	품목명	양허 유형	2003		2004 4~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칠레 총수입	-	1,057.7	40.3	1,140.1	81.4
1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정제한 동의 것)	7년	481.3	21.1	528.3	95.5
2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즉시	219.1	81.7	315.5	112.5
3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즉시	82.9	64,647.7	37.3	-36.4
4	4703212000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황산, 펄프, 표백, 침엽수류의것)	즉시	44.6	15.8	35.5	26.9
5	261310000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배소한것)	즉시	10.3	141.5	29.0	413.1
6	2601111000	적철광(응결하지않은것)	즉시	15.3	-61.2	26.7	638.2
7	0203291000	삼겹살	10년	23.1	494.0	24.4	67.4
8	7403192000	잉곳(정제한 동의 것)	즉시	29.2	0.3	23.6	73.9
9	230120100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10년	14.9	34.7	17.4	38.1
10	4703292000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황산펄프, 표백, 활엽수류의것)	즉시	20.0	15.0	15.0	28.7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88.9		92.3	
동 관련 제품의 비중				69.0		76.1	

주: 1) 2004년 4~10월 누적 수입액 기준 순위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동 관련 제품은 HS 10단위 기준 7403110000, 2603000000, 7403192000을 합한 것임.

자료: 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동 관련 제품은 2002년 이후 對칠레 수입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FTA 발효 이후에는 76.1%로 더욱 확대되고 있음.
- FTA 발효 이후 상위 10대 품목 중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적철광이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음.

5) 상위 10대 수입품목의 비중은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동 관련 제품 3종이 76.1%에 이르고 있음. 그 외에 원자재가 6종, 소비재 1종(삼겹살)이 포함되어 있음.

- 목재 제품과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2002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삼겹살의 수입증가율도 67.4%에 이르고 있음.

□ 농축산물 총수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58%에서 FTA 발효 이후에는 0.82%로 높아졌음(<표 4> 참조).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총수입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7%로 나타남.

<표 4> 연도별 對칠레 농축산물 수입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한국의 농축산물 총수입(A)	對칠레 총수입(B)	對칠레 농축산물 총수입(C)	對칠레 농산물 총수입	C/A	C/B
2000	7,543.2	902.0	14.2	14.1	0.19	1.58
2001	7,577.4	696.1	11.6	11.5	0.15	1.66
2002	8,396.7	753.9	20.9	14.4	0.25	2.77
2003	9,048.7	1,057.7	52.4	21.8	0.58	4.95
2004						
1~10월	8,200.5	1,653.8	66.7	24.3	0.81	4.03
4~10월	5,933.0	1,140.1	48.7	18.1	0.82	4.27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이를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한국의 농산물 수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32%에서 2004년 1~10월에 0.36%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는 동 기간 1.38%에서 2.87%로 수입이 증가함.⁶⁾
- FTA 발효 이후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농축산물 품목(HS 10단위)은 돼지고기(삼겹살), 포도, 붉은 포도주, 키위프루트, 토마토페이스트 등의 순임.

다. 투자

□ 1990년 이후 한국의 FDI 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칠레로부터의 투자 유입

6)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이 對칠레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95%에서 2004년 1~10월에 4%로 감소하였음. 이는 2003년 4~10월과 2004년 4~10월의 수입비중을 비교하여도 각각 5.2%와 4.3%로 나타나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칠레 FTA 발효 후에도 큰 변화가 없음.⁷⁾

□ 한국의 對칠레 투자는 2003년 550만 달러, 2004년 1~10월에는 985만 달러로 한국의 총 해외투자에서 각각 0.15%, 0.22%를 차지하고 있음.⁸⁾ 2004년 투자 또한 지난 2월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FTA 발효 이후 166만 달러의 투자가 신고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5만 달러에 그침.⁹⁾

- 그러나 칠레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경제를 개방해 왔기 때문에 여타 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

3.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원자재로는 동 관련 제품, 목재 제품, 기타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이 크게 이루어졌음.

- 특히 칠레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對칠레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 관련 제품의 가격(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동 가격 기준)은 2004년 11월 말 기준 가격이 2002년 12월 말 대비 107.0% 상승하였음 (<그림 1> 참조).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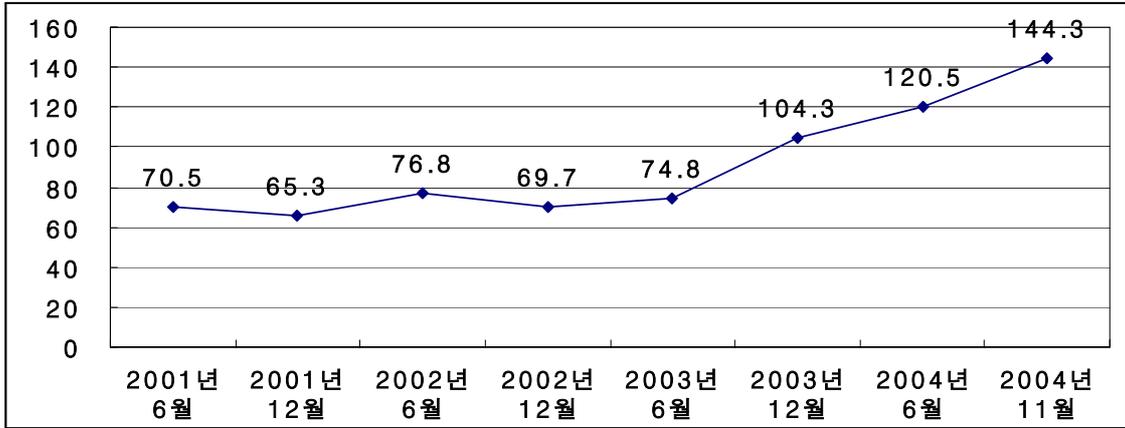
7)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참조.

8) 대칠레 투자 부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리적 위치, 문화적 차이, 그리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9) Daewoo Electronica Corporation Chile S.A.에 대해 98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임. FTA 발효 이후 Forestal Lautaro S.A.에 대해서는 162만 달러의 투자가 신고(9월)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lark Material Handling Chile S.A.에 5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10월).

10)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동 관련 제품의 톤당 가격은 2003년에 10~20% 가량 상승하였고, 2004년에는 60~70% 정도 상승하였음

<그림 1> 銅의 국제가격 동향



주: 銅의 현물 확정가격(Spot Settlement Price) 기준임.

자료: New York Mercantile Exchange(<http://www.nymex.com>)

- FTA 발효 이후 수입액 면에서는 음극과 음극의 형재가 95.5%, 동광과 그 정광이 112.5%, 잉곳이 73.9% 증가하였지만, 수입중량은 각각 16.4%, 37.0%, 3.9%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음.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對칠레 무역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을 산출하였음.

$$\text{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 = \text{금년도 원자재 품목별 수입량} \times (\text{금년도 원자재 품목별 톤당 가격} - \text{전년도 원자재 품목별 톤당 가격})$$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對칠레 주요 수입 원자재(9개 품목)의 초과 수입액을 추계한 결과, FTA 발효 이후 총 3.7억 달러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표 5> 對칠레 수입 주요 원자재 가격 및 초과수입액 동향
(단위: 천달러/톤, %, 백만달러)

품목코드 (HS 10단위)	품목명	2003년		2004 4~10월			
		천달러/톤	증가율	천달러/톤	증가율	수입증량 증가율	초과 수입액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정제한 동의 것)	1.8	12.3	2.9	68.0	16.4	213.8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0.5	21.0	0.9	55.1	37.0	112.0
2905110000	베탄올(메틸알코올)	0.2	105.1	0.3	1.7	-37.5	0.6
4703212000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황산, 펄프, 표백, 침엽수류의것)	0.5	9.9	0.6	19.8	6.0	5.9
261310000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배소한것)	6.2	40.0	17.3	188.8	77.7	18.9
2601111000	적철광(응결하지않은것)	0.0	17.2	0.1	46.1	405.5	8.4
7403192000	잉곳(정제한 동의 것)	1.7	14.0	2.8	67.4	3.9	9.5
230120100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0.5	12.9	0.8	17.9	17.2	2.6
4703292000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 황산펄프, 표백, 활엽수류의것)	0.7	-3.9	0.5	3.7	24.2	0.5
초과수입액계							372.3

주: 1)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 = 금년도 원자재 수입량 × (금년도 원자재 톤당 가격 - 전년도 원자재 톤당 가격)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원자재의 톤당 가격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의 자료로 재추계

-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총수입액 11.4억 달러에서 이와 같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수입분을 감하면,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수입은 22.2% 증가¹¹⁾하였으며, 무역수지도 약 3.6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3.3억 달러)보다 8.6% 증가한 수준임.
-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음극과 음극의 형재가 약 2.1억 달러, 동광과 그 정광이 약 1.1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동 관련 3개 제품에서만 약 3.4억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수입분을 제외하면, 한국·칠레 FTA 발효 후 對칠레 수입증가율(22.2%)은 한국의 對칠레 수출증가율(36.9%)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對칠레 원자재(적철광 및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을 제외) 수입 증량은 안정된 증가 추이를 나타내므로, 최근 對칠레 수입 증가는 FTA 발효

11)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총수입 11.4억 달러에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 3.7억 달러를 제외한 순수입액은 7.7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 수입액 6.3억 달러에 비해 22.2% 증가한 수준임.

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동광과 그 정광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입비중이 가장 큰 음극과 음극의 형재는 상대적으로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확대효과(trade expansion effect)가 뚜렷하지 않았음(<표 6> 참조).¹²⁾

<표 6> 동 관련제품의 수입 동향

(단위: 천달러, 톤, %)

품목	수입 대상국	금액(천달러)			수량(톤)		
		2003 4~10	2004 4~10	증가율	2003 4~10	2004 4~10	증가율
음극과 음극의 형재(정제한 동의 것) HS 7403110000	전체	396,110 (100.0)	782,858 (100.0)	97.6	226,952 (100.0)	268,068 (100.0)	18.1
	칠레	270,201 (68.2)	528,291 (67.5)	95.5	155,163 (68.4)	180,598 (67.4)	16.4
	여타국	125,909 (31.8)	254,567 (32.5)	102.2	71,789 (31.6)	87,470 (32.6)	21.8
동광과 그 정광 HS 2603000000	전체	555,108 (100.0)	748,823 (100.0)	34.9	794,940 (100.0)	819,945 (100.0)	3.1
	칠레	148,488 (26.7)	315,506 (42.1)	112.5	269,014 (33.8)	368,627 (45.0)	37.0
	여타국	406,620 (73.3)	433,317 (57.9)	6.6	525,927 (66.2)	451,318 (55.0)	-14.2
잉곳(정제한 동의 것) HS 7403192000	전체	13,778 (100.0)	25,784 (100.0)	87.1	8,115 (100.0)	9,191 (100.0)	13.3
	칠레	13,599 (98.7)	23,644 (91.7)	73.9	8,080 (99.6)	8,393 (91.3)	3.9
	여타국	179 (1.3)	2,140 (8.3)	1,095.5	36 (0.4)	798 (8.7)	2,139.2

주: ()는 해당 품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의 자료로 재추계

- 동광과 그 정광은 FTA 발효 이후의 총수입액이 7.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9% 증가하였지만, 총수입중량은 3.1%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는 등 원자재가격 상승이 수입을 증가시켰음. 같은 기간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금액기준 112.5%, 중량기준 37.0% 증가한 반면, 여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액기준으로는 6.6% 증가하였으나, 중량기준으로는 14.2% 감소하

12) FTA 체결로 역내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역내국과 역외국 사이에는 관세상의 차별대우가 나타나게 됨. 이로 인해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상품이 FTA 체결 후에는 역내국에서 수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라 함. 한편,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가격하락과 소비증대에 따른 수입증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무역확대효과(trade expansion effect)라고 함.

는 등 FTA 발효로 동광과 그 정광의 수입이 여타국에서 칠레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음.

- 한편, FTA 발효 이후 음극과 음극의 형재는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액·중량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지만, 여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나. 농축산물 수입 분석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2004년 4~10월)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농축산물 총수입은 14.0% 증가한 반면, 칠레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은 47.9% 증가하였는데, 이는 칠레산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표 7> 참조). 즉,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축산물 수입은 63.6%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축산물 총수입에서 칠레산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1.5%에서 2.8%로 증가하였음.

<표 7> 한국·칠레 FTA 발효이후 對칠레 농축산물 수입비중
(단위: 천 달러, %)

	2003년 4~10월			2004년 4~10월		
	총수입(A)	對칠레 수입(B)	B/A	총수입(A)	對칠레 수입(B)	B/A
농산물	3,916,740	14,236	0.4	4,832,989 (23.4)	18,097 (27.1)	0.4
축산물	1,287,953	18,693	1.5	1,099,964 (-14.6)	30,589 (63.6)	2.8
농축산물	5,204,693	32,929	0.6	5,932,953 (14.0)	48,686 (47.9)	0.8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이처럼 對칠레 축산물 수입 증가는 농축산물 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삼겹살 포함)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¹³⁾

- 농산물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율은 27.1%로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 23.4%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임.

13) 증가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0>의 내용 참조.

□ <표 8>은 한국·칠레 FTA에서 농축산물 관세양허품목의 수입변화를 칠레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위주로 즉시 관세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계절관세 등의 관세유형별로 살펴본 것임.

<표 8> 관세양허품목의 수입변화(즉시, 5년, 10년, 계절관세)

(단위: 천 달러, %)

관세유형	품목	연도	2004(1~10월)										4~10월 합계	증가 율
			1	2	3	4	5	6	7	8	9	10		
즉시철폐	토마토페이스트 (조제, 저장처리)	2003	0	0	0	46	0	23	0	23	23	86	201	163.7
		2004	87	0	15	151	0	166	30	150	33	0	530	
5년	붉은 포도주 (2ℓ이하 용기)	2003	112	201	59	180	217	210	53	147	397	164	1,368	240.1
		2004	518	312	241	618	372	712	706	453	1,101	690	4,652	
	흰 포도주 (2ℓ이하 용기)	2003	14	42	20	27	80	35	7	20	51	9	229	96.9
		2004	57	13	18	31	29	120	68	61	102	40	451	
10년	삼겹살(냉동)	2003	838	1,211	1,521	1,450	2,008	2,687	1,883	2,553	1,386	2,611	14,578	67.4
		2004	3,761	3,009	2,275	2,914	3,306	4,432	2,555	3,586	3,173	4,442	24,408	
	키위프루트	2003	0	0	0	67	552	512	332	28	237	31	1,759	64.0
		2004	0	0	0	655	359	761	373	309	57	370	2,884	
	기타 돼지고기 (냉동)	2003	494	517	618	536	397	437	638	464	505	860	3,837	54.1
		2004	992	846	878	674	699	535	603	757	1,083	1,560	5,911	
10년 (계절관세)	포도(신선)	2003	257	1,828	2,368	4,390	3,835	978	0	0	0	0	9,203	-5.8
		2004	739	1,228	2,493	4,882	3,414	370	0	0	0	0	8,666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04년 4~10월의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5년내 관세철폐 품목인 붉은 포도주(2ℓ 이하 용기)의 경우, FTA 발효 이후(2004년 4~10월) 전년동기대비 240.1% 수입이 증가하였음. 이는 전반적으로 웰빙현상 및 포도주 소비대중화¹⁴⁾에 따른 포도주 수입이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현행 관세 15%에서 FTA 발효 이후 12.5%로 관세가 인하함에 따른 가격감소와 프랑스산 포도주에서 칠레산 포도주로 수입선이 전환된 무역전환효과로 분석됨(<표 9> 참조).

· 붉은 포도주(2ℓ 이하 용기)의 총수입에서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10월의 9.0%에서 FTA 발효 이후 19.5%로 증가한 반면, 여타국들의 수입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4) 포도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가 두드러지는 품목임. 본 연구에서 수입포도주 수요함수를 추정해본 결과, 가격에 대해서는 비탄력적(-0.868)이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매우 탄력적(4.874)인 것으로 나타남.

<표 9> 붉은 포도주(2ℓ 이하 용기)의 수입선

(단위: 천 달러, %)

	2003(4~10월)	2004(4~10월)	증가율
프랑스	7,644 (50.3)	10,360 (43.4)	35.5
칠레	1,368 (9.0)	4,652 (19.5)	240.1
미국	2,811 (18.5)	3,693 (15.5)	31.4
이탈리아	1,595 (10.5)	1,985 (8.3)	24.5
전체 수입	15,193	23,848	57.0

주: ()는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10년내 관세철폐 품목인 삼겹살의 수입선 변화를 살펴보면, 삼겹살 총수입에서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10월 20.2%에서 FTA 발효 이후 22.6%로 다소 증가한 반면, 벨기에(30.6%→27.6%) 등 다른 수입국들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FTA 발효에 의해 벨기에 등 다른 수입국들로부터 수입선이 소폭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음(<표 10> 참조).

<표 10> 삼겹살의 수입선

(단위: 천 달러, %)

	2003(4~10월)	2004(4~10월)	증가율
벨기에	22,057 (30.6)	29,769 (27.6)	35.0
칠레	14,578 (20.2)	24,408 (22.6)	67.4
네덜란드	8,132 (11.3)	12,052 (11.2)	48.2
덴마크	6,976 (9.7)	7,033 (6.5)	0.8
총 수입	72,130	107,877	49.6

주: ()는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삼겹살의 경우, 관세인하(26.2%→23.8%)에 따른 가격감소와 수입선 전환, 그리고 조류독감, 광우병으로 인해 닭고기와 쇠고기 수요가 줄어든 수요대체효과 등에서 수입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10년내 관세철폐 품목인 키위프루트도 FTA 발효 이후 수입이 64.0% 증가하였으나, 삼겹살,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수입선 전환이 주된 이유임.
- 10년 관세철폐 품목 중 포도(신선)는 유일하게 계절관세(11~4월)를 적용 받게 되어 있음.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던 칠레산 포도의 수입은 오히려 FTA 발효 이후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⁵⁾

4. 결론 및 시사점

- 아직까지 한국·칠레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관세를 균등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한국·칠레 FTA의 효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부 공산품 및 농축산물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FTA에 의한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무역확대효과 등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공산품의 경우,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의 즉시철폐가 이루어져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칠레의 관세철폐계획에서 공산품의 상당 부분이 즉시철폐가 아닌 단계적 철폐로 양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산품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한국의 對칠레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對칠레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며, 부분적으로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對칠레 수입 주요 9대 원자재 품목의 초과

15) 그러나 FTA의 칠레산 포도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2005년 계절관세가 끝난 후에야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수입액이 2004년 4~10월 3.7억 달러에 이르며, 이를 제외하면 對칠레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낮음.

- 그러나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원자재 품목의 수입(금액 및 물량 기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배제한 물량기준 수입을 보더라도 평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한국·칠레 FTA 발효가 수입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음.
- 동 관련제품의 경우, 즉시철폐 품목인 동광과 그 정광의 무역전환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7년철폐 품목인 음극과 음극의 형재는 상대적으로 무역전환효과 또는 무역확대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음.
- 한편, 즉시철폐 이외의 품목으로 되어 있는 원자재의 경우, 향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됨.¹⁶⁾

□ FTA 발효 이후 對칠레 농축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9% 증가하였지만, 한국의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칠레산 농축산물의 비중은 1% 미만이며, 칠레로부터의 총수입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4% 내외로 나타나는 등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가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FTA 발효 이후 對칠레 농축산물 수입증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선이 전환된 무역전환효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으로는 對칠레 상위 수입품목인 돼지고기 삼겹살, 포도주, 키위프루트 등이 있음.
- 칠레와의 FTA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던 포도는

16) 특히 2004년 4~10월 기준 對칠레 수입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음극과 음극의 형재(정제한 동의 것)는 기본세율이 5.0%이고 7년 철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는 FTA 발효가 향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됨.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였고, 나머지 품목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농축산물 양허품목 중 7~16년내 관세철폐 품목의 경우, 관세가 점진적으로 감축된다는 것은 이들 품목의 구조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에 대비한 국내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특히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품목은 당장은 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마늘, 양파, 고추, 오렌지, 참깨 등 고율관세의 민감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양국간 투자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칠레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FTAA 형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칠레를 한국의 미주대륙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유인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한국·칠레 FTA 발효로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의 가능성이 보다 확대된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내기업의 칠레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칠레 FTA의 주요 내용, 칠레의 투자환경, 시장, 문화 등에 대한 정보 마련과 민간·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요구됨.